東亞日報
旭旭鎭 社長
高李泰 在東泰 人事課長
李行 發行所
서울特別市 종로區 세종로139
東亞日報社
電話 交換臺 自 ㉖6221 至5228 / 自 ㉖6231 至5237
直通 普及部 ㉓6106 / 廣告部 ㉓6107
購讀料 月定 220원
本報는 新聞倫理綱領및 그실천요강을 준수한다。

三養라면 三養누면 三養칼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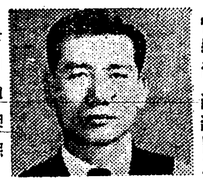
KAL拉北乘客39명 등 12명 抑留

14日 오후板門店 통해 네 乘務員 歸還

작년十二月十一日 江陵을떠나 서울로오다 대관령상공에서납북됐던 KAL소속 YS11機탑승승객五十一명가운데 九명(남자三十二 여자七)이 지난十四日오후四시五十九분 板門店을통해 남북六十五日만에 다시 자유의품으로 돌아왔다。이날 공동일직장교 「베리스」中領에의해 인수、「자유의다리」를건너 꿈에그리던 「자유의품」에 다시안긴 三十九명의 귀환승객들은 지난十四日밤八시넘어 서울에도착、六十五日간의악몽을씻고 오후기자회견을통해 KAL機납북경위와 北傀의만행을 폭로규탄했다。이들귀환승객은 十五日오후 기자회견에서 KAL機는 고정간첩 趙昶熙(四二)의 强制拉北되었다고 한결같이 입을모으고 △號公再錄 관계記事 二·三·四면〉

간첩 趙昶熙단독犯行

歸還者들 「北傀만행」폭露…눈물의會見



대관嶺넘자 銃威협 誘導

두北傀機나타나

中央情報部및 治安局KAL機납북사건 合同수사본부는 十五일오후 KAL機拉北은 고정간첩 趙昶熙(四二·東京市神田區神保町三丁目一八番地 東京中華料理業)의 단독犯行으로 밝혀졌으며 작년十二月十二日부터十二時三十五分 대관령上空에서 KAL機가 北傀機에 의해 拉北될때까지 機內에서 犯行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趙昶熙는 지난 六四년 一月 韓國에 入國、서울에 머물면서 中央情報部 第二局 對共工作班의 指揮를 받아 간첩活動을 해왔으며 지난 六七년 一月 日本으로 出國、東京에서 北傀의 對南工作機關인 朝總聯 傘下團體인 在日本朝鮮人商工會 中央本部 副委員長 許宗萬(五七)을 만나 北傀의 對南工作指令을 받고 韓國에 再入國、KAL機 拉北工作을 謀議한 것으로 밝혀졌다。

趙昶熙는 지난 六七년 一月 日本